

믿었던 도끼

김진우 2군행 이어 한기주도 부진

"10억짜리 뒷문이 뚫렸다."

KIA가 시즌 초반 '토종 에이스' 김진우의 2군 강등에 이어 '10억짜리' 뒷문마저 뚫리면서 고민의 늪에 빠졌다.

한화와 두산도 마무리 불안에 애를 태우는 동병상련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

KIA의 '10억팔' 마무리 한기주(20)는 지난 10일 현대와의 광주 홈 개막전에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1-1로 팽팽하던 연장 10회초 필승카드로 나선 한기주는 아웃카운트 2개를 잡으면서 4피안타 3실점했다.

직구 최고 시속이 154km까지 나왔지만, 직구가 가운데 몰리는 바람에 난타를 당했다.

한기주는 을 시범경기 5게임에서도 4실점, 평균 자책점 6.35로 믿음감을 심어주지 못했다.

사정환 KIA 감독의 진단은 몸쪽 승부의 부재다.

한기주는 시속 150km대의 캐스팅구를 장착한 만큼 몸쪽 공만 제대로 던진다면 천하무적이다지만, 몸쪽 승부에 약한 면을 노출하고 있다는 게 서감독의 설명이다.

몸쪽은 실투가 났을 때 훌륭으로 직결될 수 있는 코스로 자신의 투구에 믿음이 없으면 던지지 못하는 코스다.

서감독은 "한기주가 경험부족으로 몸쪽 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며 "아직 시즌 초반이라 (한)기주를 믿고 갈 수 밖에 없다. 하



불안한 발등

시즌 초반 마운드 구멍에 고민

지만 부진이 계속된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화와 두산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있다.

한화는 지난 해 37세이브를 수확하며 한국시리즈 진출에 기여했던 특급 마무리 구대성(38)이 왼쪽 무릎 통증으로 1군 엔트리에서 빠져 있다.

6일 SK와 정규리그 개막전 연장 10회 2사 후 등판해 이닝을 무사히 마쳤지만 지난 달 17일 삼성과 시범경기 때 빼끗했던 왼쪽 무릎 통증이 다시 찾아온 것.

병원 정밀진단에서 미미한 염증을 제외하고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많은 나이와 밸을 틀어 던지는 극단적인 투구 패턴 탓에 구대성의 1군 복귀는 다음 달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구원 부문 2위(38세이브) 정재훈(26·두산)도 6일 삼성과 개막전 때 7-4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9회말 3실점하며 7-7 동점을 허용했고, 연장 10회 7-8 패배의 밀미를 제공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에이스' 김진우와 '마무리' 한기주가 시즌 초반 동반 부진에 빠졌다. 김진우는 2군으로 강등됐고, 한기주는 지난 10일 현대전에서 시즌 첫 패전투수가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일본 미야자키 전지훈련에서 김진우(왼쪽)와 한기주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재응 10실점

텍사스전 선발 등판

3홈런 등 8안타 둘매

미국프로야구에서 콜로라도 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와 함께 대표적인 타자 친화 구장으로 꼽히는 텍사스 주 알링턴의 레인저스 볼파크가 또 다시 한국인 선발 투수에게 시련을 안겨 줬다.

지난 2003년부터 폴타임 메이저리거로 활약해 온 서재응(31·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이 11일(한국시간) 레인저스 볼파크에서 벌어진 텍사스 전에서 훌륭 3방 포함 8안타의 둘매를 맞고 한 경기 개인 최다 실점인 10실점(5자책점)을 남긴 채 쓸쓸히 마운드를 내려왔다.

레인저스 볼파크는 구장 외야에 부는 강한 제트 기류를 타고 장타가 빙발하는 구장으로 알려져 있다.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 ESPN 자료에 따르면 레인저스 볼파크는 지난해 타자 친화도를 알려주는 파크 팩터에서 1.081을 마크, 30개 구장 중 전체 5위에 올랐다.

훌 경기와 원정 경기의 득점력을 종합해 나타낸 이 수치에서 '1'을 넘으면 타자 친화 구장으로 꼽힌다. 서재응은 뉴욕 메츠 소속이던 2003년 이 곳에서 딱 한차례 등판, 7이닝 동안 안타 8개를 맞고 2실점 했지만 훌륭은 허용하지 않고 승리를 따냈었다.



박자 맞춰 절 먹던 힘까지

11일 오전 한강카누경기장에서 열린 제24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남자대학 일반부 카누 4인승 1,000m 결승에서 선수들이 패들을 힘차게 짓고 있다.

/연합뉴스

강혜은 (광주 벨인퍼컴) 3관왕

대통령기 시도대항 볼링 강혜은(광주 벨인퍼컴·사진)이 제2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으며 윤희여(광주 벨인퍼컴)는 여자 일반부 마스터즈에서 우승했다. 강혜은은 11일 광주ABC볼링장에서 열린 여 일반 마스터즈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였으나 213.3점을 기록해 6위로 처져 4관왕 꿈을 접았다. 따라서 강혜은은 이번 대회에서 3인조전과 5인조전에 이어 개인종합에서 우승, 3관왕에 올랐다.

팀동료 윤희여는 이날 평균 230점을 기록하며 우승해 5인조전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이외에 마스터즈에 출전한 광주벨인퍼컴 흥수연과 김여진은 각각 216.3점을과 213.1점을으로 4.5위를 기록했다.

한편 광주벨인퍼컴 여자볼링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1개를 획득해 창단 2년만에 전국대회에서 여자부 종합우승의 패거리를 이룩했다.

“국가대표 탈락 설움 씻어”

강혜은 3관왕 소감

“을 국가대표에서 탈락한 아쉬움을 조금 이로도 만회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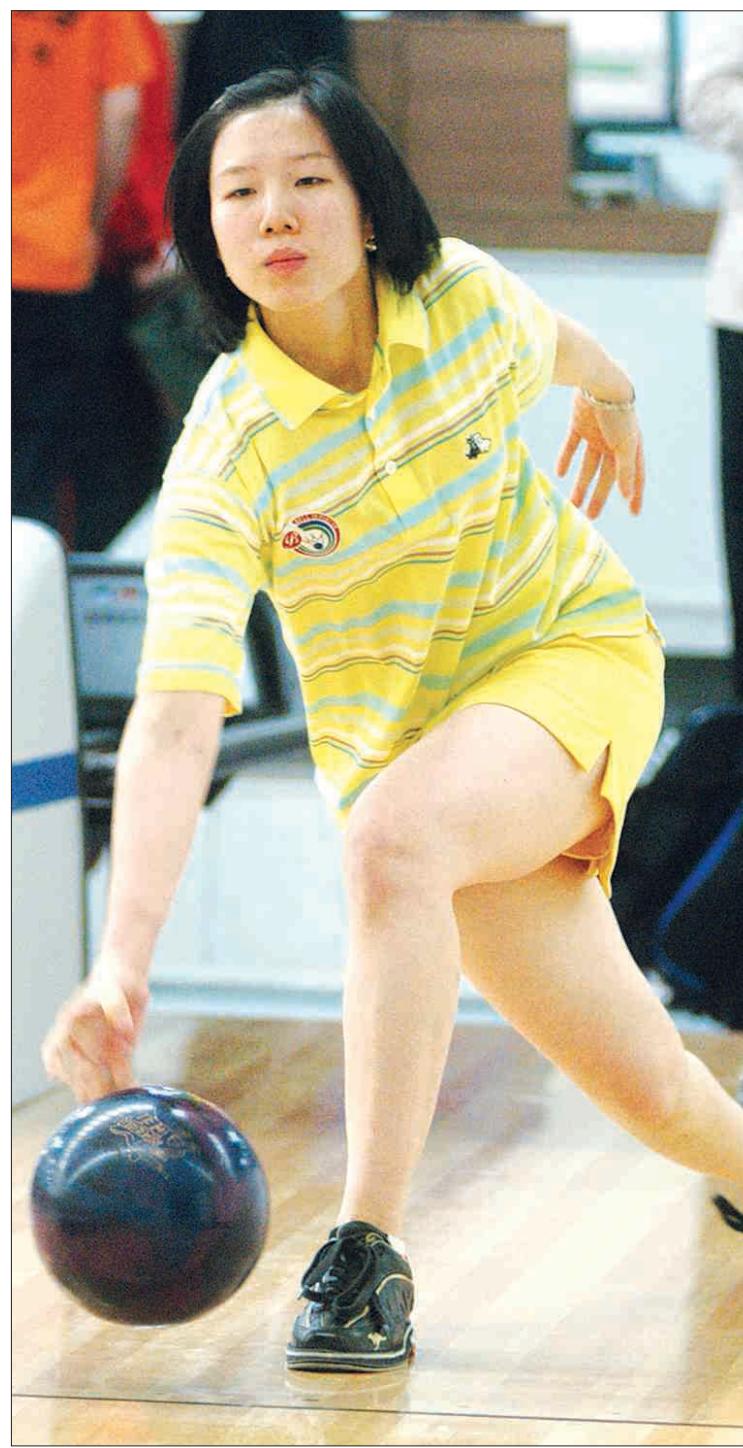
지난 6일부터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제22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볼링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3관왕(3인조전, 5인조전, 개인종합)에 오른 강혜은(21·광주벨인퍼컴)은 “앞으로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해 광주 전국체전에서 여자볼링 종합우승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 천안출신으로 올해 광주벨인퍼컴에 입단한 강혜은은 지난 2004년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을 거쳐 2005~2006년까지 국가대표를 지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특히 팀 동료 4명이 태극마크를 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박탈감이 더 컸다. 그렇지만 강혜은은 한 달 후 보란듯이 올해 첫 전국대회인 대통령배에서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2월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강혜은이 이번 대회에서 기록한 3관왕은 일반적으로 대학졸업생들이 실업팀에 입단 한 후 겪는 적응기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여서 볼링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주 다시중 '금빛 질주'

대통령기 사이클 여중 단체 스프린트 우승

전남사이클 선발팀이 제24회 대통령기 시·도대항전국사이클대회 5일째 금3, 은3, 동4개를 획득했다.

최은진·임지은·최영은(나주다시중)은 11일 나주시 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여중부 단체스프린트에서 1분20초 62로 우승했다.

나이름(전남미용고 3년)도 여고부 2km 개인종별에서 2분 44초 39로 창원경일여고 김해림을 제치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남승우(금성중 2년)도 남중부 500m 독주에서 36초79로 우승했다.

나주시청은 여자일반부 3km 단체추발에서 상주시청에 패해 2위를 기록했으며 강진군청은 남자일반부 4km 단체추발에서 2위, 임지은(나주다시중 3년)도 여중부 200m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외에 김진희·나이름·홍현지·이수진(전남미용고)은 여고부 3km 단체추발에서 3위를 기록했고, 최영은(나주다시중 2년)과 남승우(금성중 2년)는 각각 여중부 1km 개인종별과 남중부 200m에서 3위에 올랐다.

나이경(나주시청)도 여일반부 개인종별에서 역시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병현 패전

다저스전 구원 등판

20닝 1실점 '쓴맛'

'한국산 핵잠수함' 김병현(28·콜로라도 로키스)이 시즌 두 번째 구원 등판에서 쓴맛을 봤다.

김병현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원정 경기에서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20닝 동안 안타 1개와 불펜 1개로 1실점 해 패전투수가 됐다.

시즌 1승1패를 올린 김병현의 평균 자책점은 6.00(총점 9.00)으로 낮아졌다.

1-1로 팽팽하던 7회 말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 로드리고 로페스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김병현은 첫 타자 루이스 곤살레스를 2루수 땅볼로 요리하고 월슨 밸데스와 안드레 이시어를 각각 유격수 땅볼, 2루수 땅볼로 잘 처리했다.

그러나 8회 말 선두타자 월슨 베트미트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다음 타자 마흔 앤더슨을 종결수 땅공으로 잡았지만 후안 피에르에게 우전안타를 맞아 1사 1, 3루의 위기에 몰렸다.

김병현은 후속 러셀 미틴에게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허용해 결국 1점을 내줬고 콜로라도는 9회 초 마지막 공격을 살리지 못해 1-2로 졌다.

한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산하 트리플A 버펄로 바이슨스의 추신수는 이날 뉴욕주 버펄로 던 타이어파크에서 열린 오타와 링크스(필리델피아 필리스 산하)와 훌경기에 3번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출장해 2타수 무안타, 2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타율은 0.167. 버펄로는 5-3으로 이겨 2연승을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윤제 (상무중) '태권왕'

정윤제(상무중)가 2007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정윤제는 11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중 웰터급 결승전에서 청안북중의 김현중을 맞아 5-4로 승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진선혁(천곡중 3)은 미들급 준결승전에서 포항 영신중의 설인석에게 서든스페 해 아쉽게 동메달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